이영주 미국 교육부장관 특별보좌관이 27일 오후 석산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美 교육부장관 특보 이영주씨 석산고 특강

"좌절하면 패자… 견디면 승자"

"누구나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때 좌절하면 패자가 되고, 견디면 승자가 된다."

부모가 광주 출신인 교포 2세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영주(26)씨는 27일 광주 석산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갖고 공부비결을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는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워싱턴과 뉴햄프셔주의 뉴미디어 분야를 담당한 인연으로, 현재 미국 교육부 장관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중이다.

이씨의 이날 특강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고 손성규씨가 설립한 석산고(석산학원)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씨는 특강에서 "주변 사람 대부분이 하버드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을 거야'란 생각을 하더라"면서 "하지만 중·고교 시절부터 놀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교시절 공부법에 대해서는 "고교시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다"면서 "자신만의 계획표를 만들고, 자투리 시간도 허비하지 않는 시간관리법을 몸에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교시절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기도 했다는 이씨는 "모든 일(공부)에는 힘든 시기가 꼭 온다. 이때 '못하겠다' '힘들다' 등 좌절

"자신만의 시간 관리법 몸에 익히고 실천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 이는 열등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나 자신의 경우 이를 극복했더니 수석졸업이라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하버드 대학 생활을 묻는 질문에는 "노력 끝에 하버드대에 입학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인데, 한 달에 10일 정도는 새벽 3~4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면서 "잘 알려진 얘기지만 입학보다는 졸업이 더 힘든 곳이 하버드다. 그래서 졸업생의 자부심도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양림동? 불로동? 정율성 생가 오늘 결론

6년째 논란…고증위, 마지막 회의 갖고 결정키로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추앙받는 정율성(鄭律成·1914-1976) 선생 출생지가 28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7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정 선생의 출생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정율성 선생 생가고증위원회(이하 고증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출생지 최종 결정을 위해 마지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남구청이 남구 양림동 79번지를 정 선생 출생지로 해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하동 정씨 종친회가 정 선생의 생가가 동구 불로동 히딩크 호텔 주변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박선홍 향토사학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그 동안 현장 검증, 관련자 증언, 문헌자료 수집 및 검토작업을 해왔다.

박 위원장은 "정 선생의 본적지는 동구 불로동으로 돼 있으며, 이곳이 과연 출생지인지가 생가 결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위원들이 생가터를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정 선생 생가가 최종 확정되면 그 인근을 중국 관광객 대상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 선생 일가의 호적만 있다면 고증할 필요 없이 생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호적 자체가 없어 자료와 증언 등을 고증해 생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율성 선생은 청년 시절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 행진곡'과 중국의 아리랑 격인 '옌안송' 등 360여곡의 노래를 창작했으며 중국의 3대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불법·음란 광고물 추방하자"

27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동부공원에서 열린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자정 결의대회'에 참석한 용봉동 상가번영회원 등 200명이 불법 음란성 광고물 추방 결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번 자정결의대회는 북구 청·용봉동 상가 번영회 주최로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치공원, 명품으로 거듭난다

내년 상반기 위탁계약 만료

TF팀 구성 '조성 방향' 설정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광주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27일 교수·시의원·연구원·시민·관련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으며, 다음달까지 재원 마련 및 공원 조성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우치공원 명품화 추진계획 수립 TF팀'은 다음달까지 민간투자 유치 및 시설 관리운영 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실시한 우치동물원 리뉴얼 관련 용역에서 지난 1992년 개장해 현재 138종 653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우치동물원을 '감성 동물원'으로 만드는 데 모두 500억원(시설 454억원, 보상 4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내년 6월5일로 27종의 놀이시설이 있는 금호패밀리랜드 민간위탁사업이 종료되면서 계약 연장, 직영 운영, 민간사업자 재공모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TF팀의 업무다.

광주시 관계자는 "TF팀은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 등이 포함된 우치공원 전체를 어떻게 꾸미고, 그에 따른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14년 말까지 우치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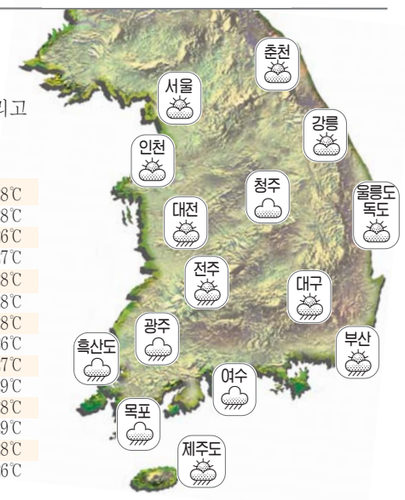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5시 38분 해짐 19시 39분 달뜸 20시 38분 달짐 07시 28분

집중호우 대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비	23/28℃
목 포	흐리고비	24/28℃
여 수	흐리고비	23/26℃
완 도	흐리고비	24/27℃
구 례	흐리고비	23/28℃
해 남	흐리고비	24/28℃
장 흥	흐리고비	24/28℃
고 흥	흐리고비	23/26℃
순 천	흐리고비	23/27℃
영 광	흐리고한때비	23/29℃
진 도	흐리고비	24/28℃
전 주	흐리고한때비	24/29℃
남 원	흐리고한때비	21/28℃
흑산도	흐리고비	23/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먼바다	남동~남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먼바다	남동~남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2.0~3.0m
먼바다	동~남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먼바다	남~남서	2.0~4.0m

	밀물	썰물
목포	03:40 15:36	08:52 20:52
여수	10:12 22:40	04:16 16: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목)	30(금)	31(토)	1(일)	2(월)	3(화)
날 씨						
최저/최고	24/31	26/32	26/33	26/33	26/33	25/33

초중고 교사들도 '안식년'

올 2학기부터 시범 운영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학 교수처럼 안식년을 갖는 '교사 학습 연구년제'가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교사를 발굴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습 연구년제를 도입, 9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하고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선발 계획 공고 등 대상자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학습 연구년제는 대학의 안식년처럼 초·중·고교 교사들이 일정 기간 교단을 떠나 국내외 연수기관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며 자기 개발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연세대 '민주화운동 우대 전형' 도입

2012학년부터 5·18유공자도

연세대가 2012학년도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 자녀를 우대하는 전형을 도입해 신입생을 뽑는다.

2011학년도 기준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자녀를 위한 전형을 따로 하는 학교는 성공회대(서울), 한신대(경기), 동신대(전남) 세 곳뿐이며 서울 주요 대학으로는 연세대가 처음이다.

연세대는 40명을 뽑는 2012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의 지원 대상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5·18 민주유공자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원래 기여자 전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세 자녀 이상 가정 출신 학생이 모집 대상이다. 대학은 5·18 민주유공자도 2012학년부터 사회기여자 전형 대상에 통합시켰다.

/연합뉴스

차량용 블랙박스 일부 품질 엉터리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품질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차량용 블랙박스 14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은 야간 식별, 시야각, 부팅 시간 등에 문제가 있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 앞쪽에 카메라를 장착해 주행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 저장하는 장치로, 사고 발생시 활용할 수 있다.

14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야간 촬영시 3~4m의 가까운 거리에서도 번호판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다. 또 3개 제품은 시야각이 90도에도 미치지 못해 측면 촬영이 쉽지 않았다. /연합뉴스